

국내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Safety Accidents of Foreign Workers in Domestic Construction Sites

○ 조 민 준*

Jo, min-jun

윤 준 영*

Yoon, Jun-young

설 원 형*

Seol, won-hyeong

양 진 국**

Yang, Jin Kook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key factors contributing to safety accidents involving foreign workers at construction sites in South Korea. With the growing number of foreign labor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nsuring their safety has become a significant concern. A combination of literature review, expert consultation, and a structured survey was conducted to extract relevant risk factors. The survey, using a 5-point Likert scale, targeted construction professionals and practitioners to evaluate the perceived importance of each factor. The analysis revealed that “non-compliance with safety regulations,”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d “poor working conditions” were among the most critical factors contributing to safety incidents. Other notable factors included insufficient safety training, lack of institutional protection, and cultural difference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urgent need for multilingual safety education programs, improved on-site communication systems, and culturally sensitive safety management practices. This research provides practical insights for policy-makers and field managers aiming to reduce accident risks among foreign workers. It also offers a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that may further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r characteristics and safety outcomes in more detail.

키워드 : 안전사고, 외국인 근로자, 영향 요인

Keywords : Occupational Accident, Foreign Worker, Influencing Factors

1. 서론

COVID-19 이후 건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종합정보망(CSI)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 사고는 2,426건이며, 그 중 중대재해 사고 사례는 71건이었다. 이상과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의사소통 문제, 안전교육의 미흡,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제시되고 있다. 향후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수요가 직접적으로 증가될 것을 고려해 볼 때 재해 사고의 원인에 대한 좀 더 구체화 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범위는 건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요인 분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한 후 건설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 안전사고 영향 요인을 추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시된 결과는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영향 요인 추출

국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10)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다. 작업 지시의 정확한 전달이 어려울 경우, 이는 단순한 품질 저하를 넘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차이(5)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빠르고 효율 중심적인 작업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6)에 노출되며 이와 연관된 하청 중심의 고용 구조는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킨다. 체계적 건설 안전 교육의 부족(4) 또한 안전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밖에도 차별적 대우, 기본 편의시설 부족, 제도적 보호 미흡 등도 안전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는 단순한 개인적 부주의가 아닌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적, 교육적, 현장 관리적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안전문화 정

*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학사과정

**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조교수/건설VE연구소장,
공학박사, 국제공인VE전문가(CVS)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vepro@deu.ac.kr)

착 및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건설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영향 요인 선행연구 분석을 정리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선행연구 분석 결과

순번	저자	주요 내용	안전사고 영향 요인
1	김진동 (2012)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동기 요인 차이 분석	사회활동 불균등, 업무 재량 부족, 환경 불안전
2	심규범 (2014)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 분석	경험 부족, 언어·문화 차이, 교육 부족
3	이연환 (2016)	건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교육 부족, 인식 개선 필요, 시설 문제
4	신종훈 (2017)	건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체계적 안전보건 교육 부족
5	백낙규, 홍준표, 임형철(2018)	설문조사를 통한 건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의 인식 조사	제도 문제, 의사소통, 기능 미숙
6	Shepherd 외 4명 (2021)	건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 분석	언어·문화 장벽, 하청 구조, 안전 규정 무시

3.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영향 요인 추출

본 연구에서는 건축시공 전문가 1인, 건설안전관리 전문가 2인, 관련 연구자 3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요도에 따라 나열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문화적 차이, 교육 부족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표 2. 전문가의 안전사고 영향요인 우선순위

순위	영향요인	세부 내용
1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안전 지침 전달과 위기 대응에서 장애 발생
2	열악한 작업 환경	보호장비 부족, 위험한 물리적 환경
3	문화적 차이	안전 인식 및 작업 방식의 차이
4	건설 안전 교육의 부족	언어 맞춤형 교육 콘텐츠 및 참여 기회 부족
5	안전통제 미준수	감독자의 규정 미이행 및 관리 소홀
6	작업자의 건강 문제	정기 건강검진 부족, 장시간 노동
7	제도적 보호 미흡	법적 보호 장치 및 정책적 지원 부족
8	작업기능 미숙	경험 부족 상태에서 고난도 공정 투입

4. 영향 요인 추출 결과의 고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이로 인해 안전 지침 전달과 위기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문화적 차이 또한 사고 위험을 크게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안전 교육의 부족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교육 접근성과 효과성이 현저히 낮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안전통제 미준수와 작업자의 건강 문제는 불충분한 감독

과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제도적 보호의 미흡함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정책적 지원의 미흡한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어 및 의사소통의 한계', '열악한 작업 환경', '문화적 괴리', '안전교육의 미흡'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언어장벽은 안전지침 전달과 긴급 상황 대처를 저해하여 사고 위험을 크게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다국어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지침 마련 등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개선 방안의 예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의 복합적 문제를 정량적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 안전을 보장하고,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사고사례
<https://www.csi.go.kr/acd/acdCaseList.do>
2. 김진동 (2012)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문화적 차이와 동기요인을 고려한 관리방안 연구]
3. 심규범 (2014)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
4. 서보현 (2014) [FD-AHP기법을 이용한 외국인 근로자 건설현장 안전인식 중요도 분석]
5. 이연환 (2019)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 신종훈 (2017)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재해원인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7. 백낙규, 홍준표, 임형철 (2018)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개선요소 도출]
8. 정성춘, 임형철 (2020)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
9. 장진영 (2021) [외국인근로자 안전의식과 개선방안 연구]
10. Rose Shepherd 외 4인 (2021) [Challenges influencing the safety of migrant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 qualitative study in Italy, Spain, and the UK]
11. 강민석 (2023)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12. 노영희, 장종화 (202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 조사 연구]
13. Karen Lau 외 8인 (2024) [Workplace mortality risk and social determinants among migrant work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